



- (4) 公共圖書館部會 I : ①오슬로 公共圖書館現況 ②노르웨이 圖書館局
- (5) 交換問題
- 11 : 00—16 : 00 公共圖書館部會 II
- 11 : 00—12 : 30 (1) 圖書館學校 II : 圖書館專門職 情報科學, 도큐멘테이션 및 文 書學에 대한 教育
- (2) 目錄 II ①宗教禮拜書에 대한 統一標目문제 ②目錄分科委員 會의 出版活動에 관한 報告 ③ 同分科委의 장차 活動에 관한 報告
- (3) 國際間的 貸借 : ①스칸디나 비아 地方에서의 國際間的 貸 借 ②國際間貸借를 위한 事務 室의 機能
- (4) 國立 및 大學圖書館部會會議
- (5) 資料保存문제
- 14 : 00—15 : 30 (1) 目錄 III / 稀觀圖書문제
- (2) 統計 및 基準部會 I : ①視聽 覺資料에 대한 Unesco 추진 基 準에 대한 統計의인 追加문제 ②아프리카 및 스칸디나비아에 서의 統計의인 發展
- (3) 圖書館雜誌編輯者 會議
- (4) 地理 및 地圖圖書館部會 I : ①美國에 있어서의 地圖圖書館 司書의 教育과 訓練 ②地理 및 地圖圖書館部會의 進展과 展望 에 관한 報告 ③ ISBD(地圖) 에 대한 進展報告
- (5) 天文 및 地文圖書館部會 I : ①天文學에 관한 基本圖書誌 문제 ②D.A. Kemp에 의한 “U DC52”改正에 관한 進展報告
- 15 : 30—18 : 30 世界書誌統整運營委員會會議
- 16 : 00—17 : 30 (1) 統計 및 基準部會 I : 標準화 를 통한 國際協力の 장래
- (2) 圖書館雜誌編輯者會議 II : ① 開發途上國에서의 編輯문제 ② 스칸디나비아에서의 編輯
- (3) 地理 및 地圖圖書館部會 II : ①開發途上國에서의 특수한 必 要性에 관한 討議 ②綜合討論
- (4) 天文 및 地文圖書館部會 II :

- ①世界에 있어서의 天文臺의 歷史문제
- ②歐羅巴天文臺에서 保存하고 있는 17世紀 圖書에 대한 綜合 目錄문제

8月 16日(土)

- 9 : 00—10 : 30 (1) 圖書館學校部會 III : 世界的인 圖書館教育에 대한 統計문제
- (2) 國際法律圖書館協會執行委員 會會議
- (3) 統計 및 基準部會 : 常任諮問 委員會會議

### 三. 韓國代表團의 活動

우리 나라 代表團이 오슬로의 IFLA會議場을 中心으 로 活動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던 다음과 같다.

#### 1. 韓國 코오너의 設置

1976年度 IFLA大會가 우리 나라에서 開催키로 決定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本誌를 통하여 報道한 바와 같다.

바로 다음 會議가 우리 나라에서 開催되는 關係로 우 리나라에 관한 여러가지의 紹介, 예를들면, 氣候, 호 텔 施設, 航空便 내지 交通便에 대한 안내, 風俗 習慣 言語문제 등에 대한 事前 情報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IFLA本부와 노르웨이 IFLA組織委員會와의 相議아래 會議場內 一部에 韓國 코오너를 設置하였다.

이를 豫想하고 우리 나라로부터 가지고 간 韓國紹介 팜프렛 英文版 2種, 佛文版 1種, 호텔施設紹介 英文版 2種, 航空便紹介팜프렛 英文版 2種 등 도합 7種 각 600部式을 마련하여 각 會員에게 配布하는 동시에, 豫 想되는 來韓 會員數를 概략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하여 來韓을 希望하는 會員들로부터 假申請書도 마련하여 申達을 받았다.

이러한 코오너의 設置는 과거 어느 IFLA會議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거의 모든 會員으로부터 大歡迎 을 받았으며, 여러 共產國家의 代表들 마저 일부러 우리 코오너를 찾아와 친절하게 이렇듯 미리 情報를 주니 참으로 고맙다고 人事까지 하는 例가 허다하였 다.

유고슬라비아의 國立圖書館副館長인 나즈다노빅女史 는 일부러 찾아와 자기 圖書館과 우리 나라의 國會圖書 館과는 이미 資料를 서로 交換하고 있다면서, 來年 韓 國會會議에는 자기가 꼭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팜프렛을 보고 매우 印象的이며 아름답 다면서, 申請書에 자진해서 申達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友邦國家들 會員은 말 할것도 없으나, 대체로 보아 여러 東歐羅巴의 共產國家代表들과, 많은 아프리카의 우리 나라와의 未修交國家代表들도 매우 好意的인 反應을 보여, 우리들 代表들을 호뜻하게 하였다.

우리는 가지고 갔던 팜플렛의 대부분을 配布함으로써 그들에게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韓國을 올바르게 認識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來年度 會議主題 및 發表論文題目의 決定

IFLA會長, 事務總長 및 英國과 캐나다 代表인 理事 두분과 우리 代表團一同이 여러 차례 會同한 결과 來年度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會議主題를 圖書館資源과 國家發展: 東洋西洋에서의 東洋出版物의 活用과 콘트롤(Library Resources and National Development: Use and Control of Eastern Publications by East and West)으로 決定되었다.

總會에서의 決議에 따라 1976年度부터는 지금까지 總會가 지던 性格을 변경하여, 事務的인 會議들(Business Conference) 學術的인 專門會議(Professional Conference)와 분리하여서 개최하기로 決定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會議는 學術的인 專門會議로서, 마치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열렸던 圖書館大會의 性格과 비슷한 것이며, 事務的인 會議는 종래 우리 나라에서 가졌던 協회의 總會와 같은 것으로서 任員의 改選이라든가 定款의 改定 豫算의 審議 等等을 다루는 會議이다.

이와 같은 決議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의 會議에 대한 主題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決定된 것으로, 이를 細分化하여 小題目을 決定하여야 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小題目들을 發表하여야 할 演士와의 접촉 등 매우 광범위한 活動과 討論이 필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會議日程은 다음과 같다:

1976年 5月 29~30日 登錄

5月 30日(日)

14:00-18:00 오리엔테이션(韓國文化 및 圖書館紹介 및 博物館見學)

5月 31日(月)

10:00-11:00 開會

14:00-18:00 全體會議 I

20:00-22:00 韓國圖書館協會主催리셉션

6月 1日(火)

9:00-12:30 全體會議 II

14:00-18:00 專門會議 A

6月 2日(水)

9:00~12:30 專門會議 B

14:00-18:00 專門會議 C

6月 3日(木)

一日 觀光

6月 4日(金)

9:00-12:30 專門會議 D

15:00-17:00 全體會議 III(閉會)

6月 5日(土)

9:00-12:30 專門會議 E

대체적인 日程은 이상과 같은데 좀 더 세부적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5月 31일에 있을 全體會議 I의 主題는 「國家發展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役割」로서 대체로 아래와 같이 重點的으로 討議될 것이다.

- 1) 圖書館發展을 위한 國際的인 努力問題
- 2) 開發途上國에서의 國家圖書館制度의 計劃
- 3) 아세아 諸國의 圖書館奉仕 問題: 圖書館직원의 訓練 및 利用者開發 등에 관련된 문제
- 4) 유고스라비아의 圖書館奉仕問題: 司書 및 利用者 教育問題
- 5) 말레이시아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開發計劃
- 6) 韓國에 있어서의 國家的인 圖書館開發計劃의 問題點: 過去의 進行過程, 현재의 상황, 장래를 위한 計劃상태, 政治的 및 財政的인 問題點, 장래의 希望 등
- 7) 圖書館奉仕: 多國語·多人種地域의 司書와 圖書館利用者の 教育問題

6月 1日 全體會議 II의 主題는 「出版物과 出版: 東洋과 西洋間의 出版傳統의 比較」로서 아래와 같이 重點的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 1) 韓國의 印刷 및 圖書生産에 특히 重點을 둔 19世紀 末葉까지의 東洋出版物의 特徵
- 2) 현대 아시아 출판의 特徵
- 3) 東洋資料의 蒐集: 아시아 圖書館들의 經驗
- 4) 東洋資料의 蒐集: 오스트라리아의 問題를 中心
- 5) 東洋資料의 蒐集: 美國圖書館들의 經驗
- 6) 東洋資料의 蒐集: 英國圖書館들의 交換計劃
- 7) 東洋資料의 蒐集: 獨逸을 中心

6月 1日 專門會議 A의 主題는 「東洋出版物에 대한 書誌的인 統整: 國家書誌의 役割」로서 아래와 같이 重點이 주어 질 것이다.

- 1) 國際書誌統整(UBC)과 國家書誌
- 2) 法的納本問題
- 3) 東南亞細亞諸國에 있어서의 國家書誌의 問題點
- 4) 極東亞細亞諸國에 있어서의 國家書誌의 問題點
- 5) 多國語·多抄錄出版物의 國家書誌出版問題

6月 2日 專門會議 B의 題는 「東洋出版物의 書誌統整」으로 아래와 같이 重點이 주어 질 것이다.

1) 目錄實行에 있어서의 國際的인 基準  
 2) 東洋資料에 관한 國際目錄基準의 利用  
 3) 西洋圖書館에 있어서의 東洋資料의 目錄: 불란서  
 4) 아랍國家의 東洋資料의 目錄  
 5) 西洋圖書館에 있어서의 東洋資料의 目錄: 英國  
 6) 아랍 出版物에 있어서 ISBD(M)의 번역과 번안물  
 6月2日 專門會議 C의 主題는 「東西에 있어서 東洋資料의 圖書館利用者들」로 아래와 같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 1) 出版物의 世界利用力
- 2) 東洋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利用者들
- 3) 地域社會奉仕로서의 公共圖書館
- 4) 極東에 있어서의 大學圖書館
- 5) 유럽에 있어서의 東洋資料의 利用者들
- 6) 多人種居住地域社會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의 奉仕
- 7) 토론토 中國人 居住地域의 奉仕問題

6月4日 專門會議D의 主題는 「國際的인 커뮤니케이션: 漢字 및 로마 字化 문제」로서 아래와 같은 問題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 1) 國際的인 水準의 解決問題: 國際標準機構案
- 2) 日本의 機械化體制에 관한 解決問題
- 3) 印度國立圖書館의 問題
- 4) 韓國에 있어서의 問題
- 6) 美國의 研究 및 學術圖書館의 問題

6月4日의 全體會議는 閉會를 겸한 것으로서 각종 報告와 추천 사항 및 決議事項을 채택한다. 그리고 6月5日의 專門會議는 앞에서 略記한 바 있는 각종 專門會議에서 다룬 문제점들을 다시 종합 정리하는 會議가 될 것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會議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앞으로 論文發表者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主題는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IFLA本部와의 절충을 통해 作成되었는데, 이 案이 成案되기까지 草案을 작성 검토하고, 다시 修正하고 하여 상당한 時日이 걸렸음은 물론 몇일간의 徹夜까지 해야 했고, 主催者측에서 마련한 觀光마저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 四. 이런일 저런일

##### 1. 北傀代表의 醜態

북괴대표로서 두명이 참가하였는데, 參加者名單에 아무런 職責이나 직장명이 明示되어 있지 않아 과연 圖書館專門職인지 아닌지를 區別할 수가 없다. 64個國

이나 참가한 500여명 가운데, 職場名이나 職分이 名記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북괴대표의 단 두사람 뿐으로서 예외에도 벗어 날 뿐만 아니라 國際慣例를 무시한 처사로서 많은 여러 사람들로 부터 嘲笑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그들의 無禮한 행동은 國際的으로 망신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마지막 總會가 있는 날 밤 오슬로市長이 招待한 晚餐會席上에서, 항상 韓國에게 有利한 記事를 써 온 노르웨이 有力新聞의 한 女記者를 북괴의 한 대표가 일부러 밀어 넘어 뜨림으로서 그의 無禮한 行動을 본 모든 各國代表들의 웃음거리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은 暴行事件은 AP통신을 통해 世界各國에 報道된 바 있고, 우리 나라의 여러 新聞에도 이내 報道된 바 있어서 그들의 蠻行을 周知하는 바이지만 북괴 대표라고는 하나 같은 핏줄기를 가진 同族이 그런 不美스러운 行動을 하는 것을 目擊했을 때 참으로 가련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筆者의 見解로는, 그들은 圖書館專門職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들의 妨害工作을 위해 나온 사람들로서, 來年에 있을 서울에서의 IFLA大會에 參加하지 말도록 여러 나라 대표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들로 밖에 판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上記한 바와 같은 無禮한 行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說得工作은 별 效果를 견우지 못한 反面 우리들의 신사적인 外交가 奏効하여 도리어 많은 好意的인 反應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圖書館人이라 자처하면서도 圖書館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政治的인 이야기만 꺼집어 내는 바람에 여러 代表들이 도리어 질색을 하고, 일부러 우리들에게 찾아와 북괴대표들의 흥을 보는 사람이 많았다.

總會閉會式때 우리 圖協會長이신 李瑄根博士가 總會議長의 要請에 따라 壇上에 올라 來年度 서울大會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口頭로 招請을 하자 萬場한 各國代表들의 雷雷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박수 치는 여러 代表들 가운데는 많은 共產國家代表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북괴 대표는 허겁지겁 總會場에서 退場하는 추태를 또 나타내 여러 代表들이 啞然失色하였던 것이다.

##### 2. 會議場·호텔 그밖의 施設

앞에서 잠깐 言及한 바 있지만 會議場은 오슬로大學 施設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하였다.

世界에서 國民所得이 많은 나라 (1人當 國民所得이 6,000弗을 넘는다)이므로 大學施設은 여유가 있고 훌륭하였다.

全體會議은 그 大學의 學生들이 주로 禮拜를 드리는 講堂에서 열렸는데, 600名을 收容할 수 있는 아담하고 훌륭한 講堂으로서 同時通譯施設까지 갖춘 現代式 講堂으로서 캠퍼스의 中心에 자리잡고 있었다.

마치 여름放學 때이어서 各國代表들의 宿所로서는 그 大學의 學生寄宿舍를 사용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大學의 寄宿舍가 아니라 一流 호텔에 못지않는 기숙사였다. 방학 때에는 항상 임시적으로 호텔로 사용하고 있어서 「파노라마 삼마 호텔」이라는 네온사인까지 달고 있다

물론 훌륭한 食堂과 構內賣店이 구비되어 있어서 조급도 불편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夫婦學生들이 많은 그나라이어서 自炊할 수 있는 施設까지 갖춘 방이 많아 夫婦同伴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自炊도 할 수 있으므로 經費를 절약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위에서도 이야기 한 바이지만 大學構內에는 굉장히 큰 슈퍼마켓이 있어서 夫婦學生들은 그곳에서 필요한 生活 필수품이나 食料品도 전부 구입할 수 있으며, 우체국이나 銀行, 書店, 藥房, 담배가게, 심지어는 航空會社 出張所까지 있어서 構內에서 모든 불일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잔디로 덮힌 넓은 캠퍼스, 現代式 시설을 갖춘 敎會와 學生食堂 자유로운 學生活動을 할 수 있는 學生會館, 훌륭한 寄宿舍 등 부러운 施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 느낀 것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대단히 무—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점이다.

노르웨이조직위원회에서 잘 못한 일이겠지만 사무 보는 것이 매우 엉성하였다. 登錄節次라든가 集團으로 行動하여야 할 때의 案內라든가, 또는 호텔의 豫約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모두 엉성하다. 아마 너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지는 모른다. 허나 우리들 눈에는 아주 엉성한 느낌이 들어 내년엔 우리가 할 때에는 이례서야 되겠는가 하고 모두 느낄 정도였다.

### 五. 結 言

북괴代表의 妨害工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매우

큰 成果를 걸우었다고 自負한다.

드디어 다음 會議가 우리 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이제 앞으로 몇달 남지 않은 장래에 열리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建國한 以來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代表가, 더욱 북괴를 포함한 모든 나라를 초청하여 開催하는 國際會議는 우리 圖書館關係會議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400~500명의 外國代表들이 참가할 것으로 豫想되는 이 會議는 文字 그대로 大國際會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絶好의 機會를 이용하여 會議開催의 目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機會를 통하여 眞正한 우리 나라의 모습을 萬邦에 널리 알림으로써 올바른 韓國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어주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國際會議를 우리 圖書館協會가 主催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나라 圖書館發展을 위하여서도 榮光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이 會議에 참가하는 國家의 數나 代表의 數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外交關係를 맺지 않은 國家들 그리고 특히 많은 共產國家들 代表까지도 참가가 豫想되므로 舉國의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4~500명이나 되는 많은 外國代表들이 적어도 한주일 이상 우리 나라에 체류하게 되므로 최소한 1人當 4~5000弗은 消費하게 되어, 결국 20~30萬弗(韓貨 約 1億圓~1億5千萬圓) 外貨까지도 벌어들일 수 있어서 一石二鳥가 一石多鳥의 效果까지도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차지고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所得일 것이다. 各國代表들이 그들 國家에서 차지하는 位置로 보아, 그리고 그들 전부가 弘報活動의 中心인 圖書館專門家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이 미치는 영향이란 至大한 것이다. 外貨를 벌어들이면서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이 機會를 충분히 活用할 수 있도록 舉國의인 뒷받침 잇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 會費와 出版物 代金を 조속히 納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 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 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은 協會의 運營은 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적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物代金 및 75年度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